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기생충, 공짜병 포플리즘

[발제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기생충은 거저먹을 생각으로 다른 동물의 몸을 선택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혐오의 대명사가 됐고,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서 퇴출될 위험에 놓였다. 자신의 힘이 아닌 남의 힘으로 먹고사는 생명체는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꾀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더 주고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렸지만, 이미 2019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줄고 있었다.

■ 앞으로 이 나라가 살아남아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재정고갈을 유발한 포퓰리즘 정책 대신 미래를 위해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점점 증가하는 고령층이 현재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의 세금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 ◆ 기생충

- ◆ 기생충이란 동물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사람에게 적응한 것이다. 기생충이 가장 특화된 부분은 생존이다. 기생충은 어떻게든 숙주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 기생충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까. 과거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의 인분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에 기생충 알이 붙어 있다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다. 현대는 하수처리장으로 오염된 물이 들어가고 물이 정화되므로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서 자랄 일이 거의 없다. 몸에 기생충이 있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생충이 몸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가 회충이 어린아이를 죽여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을 거의 박멸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기생충박멸협회가 생겼다. 학생들은 기생충 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생충 약을 먹게 하여 이를 거의 박멸시켰다.
- ◆ 우리는 식중독에 걸려도 식중독의 원인인 세균을 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세균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생충은 만만하다. 기생충은 거저먹을 생각으로 다른 동물의 몸을 선택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혐오의 대명사가 됐고,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서 퇴출될 위험에 놓였다. 자신의 힘이 아닌 남의 힘으로 먹고사는 생명체는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사람들을 정부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것이 공짜병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 ◆ 포퓰리즘과 경제기생

- ◆ 판다는 귀여움 덕분에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물이 되어 먹을 것은 항상 있다. 그러나 삶에 위기가 없다 보니 인생이 재미없다. 삶이 재미있어야 후손에게 이 삶을 물려줄 마음이 생기는데 판다는 이미 그럴 마음이 없어 짝짓기도 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1위였는데 왜 못살게 되었을까. 유가가 올랐을 때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국민들에게 1인당 기본소득을 주는 등 원 없이 복지를 베풀었다. 그러나 유가가 떨어져 국민들에게 줄 돈이 없어지자 돈을 찍어냈다.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은 더욱 핍박해졌다.
-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더 주고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렸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은 줄고 있었다.
- ◆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비중이 77.4%로 미국보다 그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자를 적폐로 몰면서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뿌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는 나라가 되었다.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잘 내는 곳이다. 기업을 격려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 ◆ 앞으로 이 나라가 살아남아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후손들을 신경 쓰지 않고 포퓰리즘 형태의 복지정책으로 당장 쓰고 보자는 생각은 위험하다. 노력하지 않고 복지에 기생하려는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 점점 증가하는 고령층이 지금 같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기의 세금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재정을 소진하고 있다. 이미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도 오늘날 같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에서는 보험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도 재정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도 고갈될 우려가 있다. 무엇이든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나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에 따라 국민들이 바뀐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질의응답

질문: 판다의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법, 사람에의 의존성을 어떻게 탈피하는 것이 좋은지?

- ◆ 제일 이상적인 것은 판다가 인간의 손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의존성은 자립을 방해하고 더욱 의존적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베푸는 복지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